



# 젠더이슈 Gender Issue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2021년 제13호

## 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인식

나성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서울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나?”

“소득지원 제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나?”

전문보기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동의 내역을 거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대표전화 02-810-5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서비스현장 바로가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ot line 02-810-54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 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인식

나성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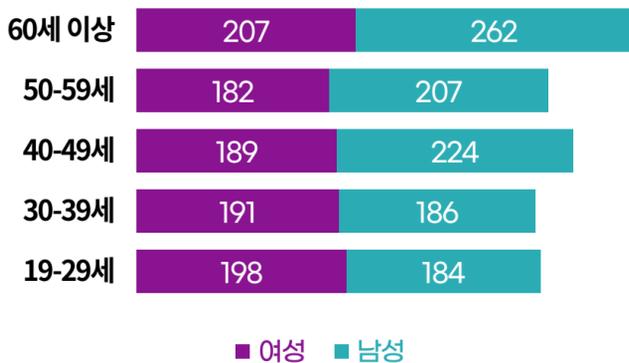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손실 등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2021년 9월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시 또한 재난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추진된 소득지원 정책의 성별 효과와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자 지난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여성과 남성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실제로 어디에 쓰고 싶었는지, 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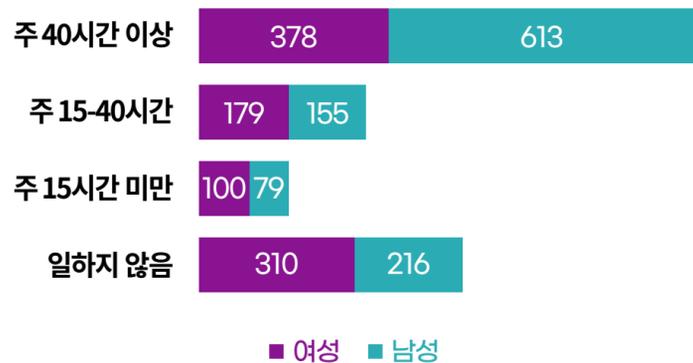
## ✓ 재난지원금 및 소득지원 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여성과 남성 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2,03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기간** | 2021. 8. 30. ~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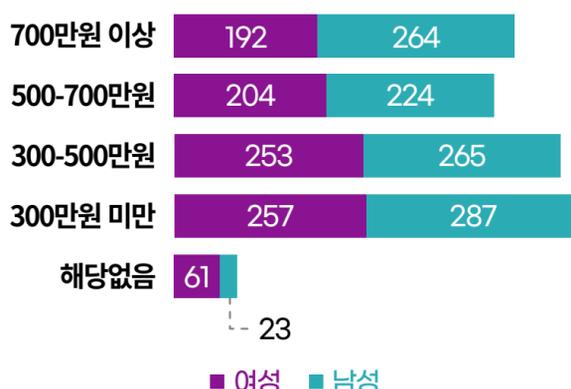
응답자 연령 분포(명)



응답자 경제활동 상태 분포(명)



응답자 가구소득 분포(명)



# 코로나19 이후 상황 변화와 재난지원금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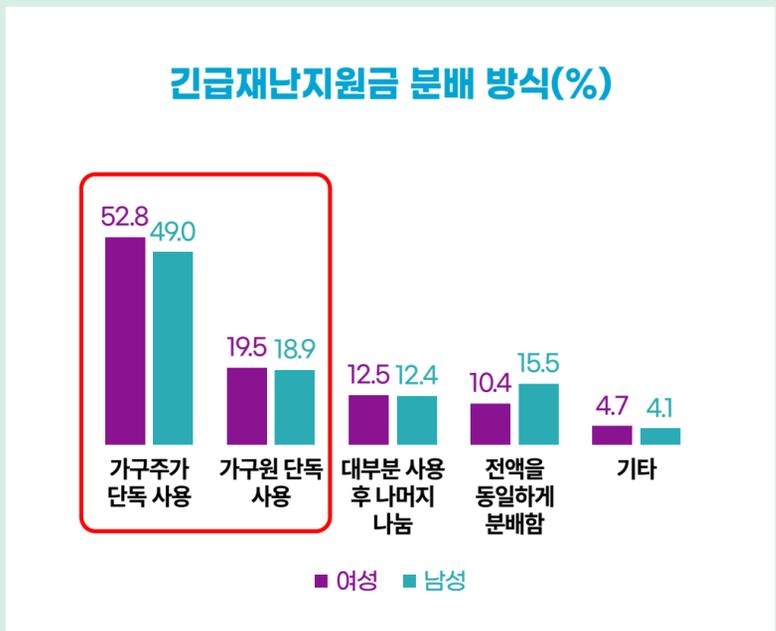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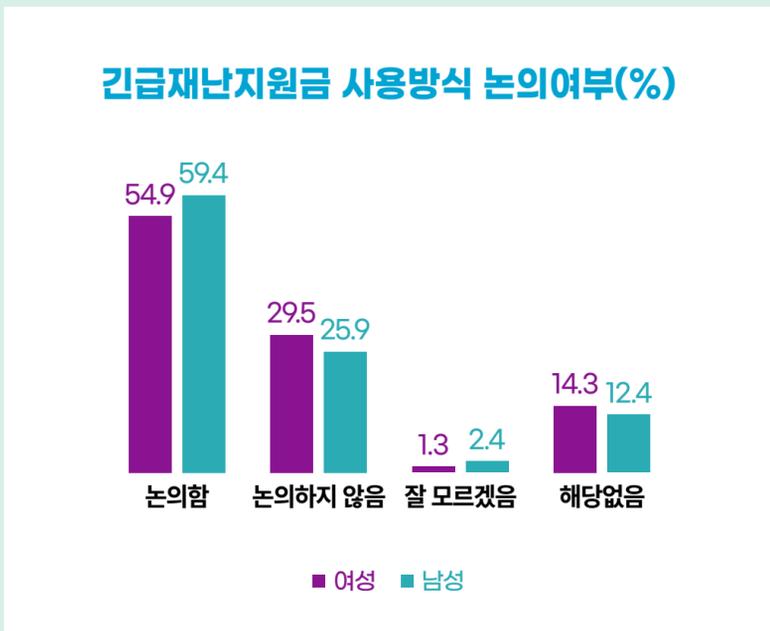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생활여건의 악화

-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생활여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1.67점/4점 만점), 응답결과는 연령, 개인소득 및 주관적 소득수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경제활동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축소, 실직 및 퇴직, 임금 삭감 및 체불, 노동강도 증가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 여성은 ‘노동시간 축소’ 및 ‘실직/퇴직’이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난지원금 사용방식을 논의했지만, 실제 사용은 특정 가구원에게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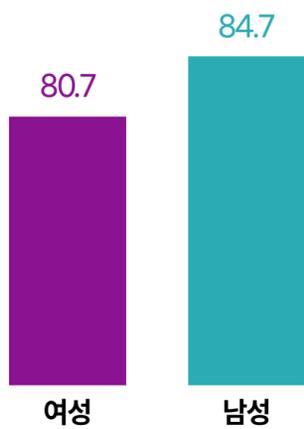
- 2020년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용방식을 논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 54.9%, 남성 59.4%에 이룸
- 그런데 실제 사용방식을 보면 가구원 간에 분배하기보다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7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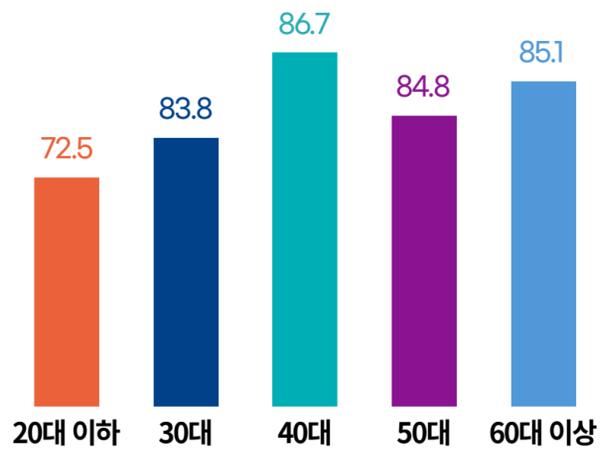
## 긴급재난지원금 분배 당시 가족 내 갈등상황에 대한 20대의 민감도가 높음

- 가족 내 갈등 발생 정도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로 남성 84.7%, 여성 80.7%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갈등상황을 덜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집단에서 갈등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2.5%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가족 내 갈등상황 없음’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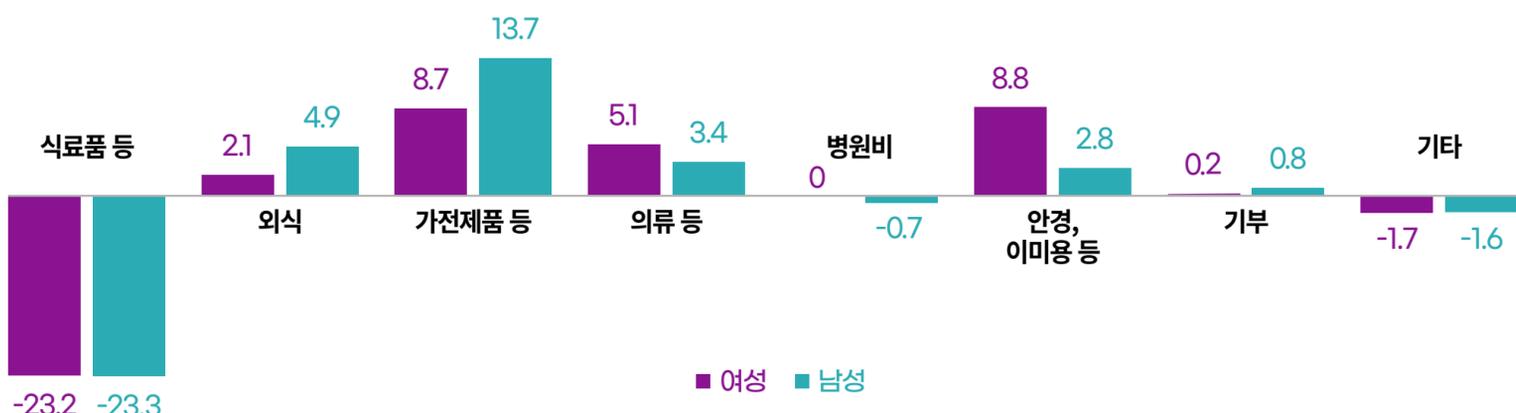
‘가족 내 갈등상황 없음’의 연령대별 차이(%)



## 재난지원금을 쓰고 싶었던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성별 차이가 나타남

- 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식료품, 생활용품 구매’로 여성 74.1%, 남성 74.8%에 이름
- 개인적으로 가장 사용하고 싶었던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 간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가전제품, 컴퓨터용품, 가구 구매’와 ‘안경, 이미용, 여행, 학원비’였음. 가전제품 등의 경우 남성은 욕구와 현실 격차가 ‘13.7%’로 여성(8.7%)과 5.0%p 차이를 보였고, 안경 등은 여성의 욕구와 현실 격차가 ‘8.8%’로 남성(2.8%)과 6.0%p 차이를 보임

희망 사용처 대비 실제 사용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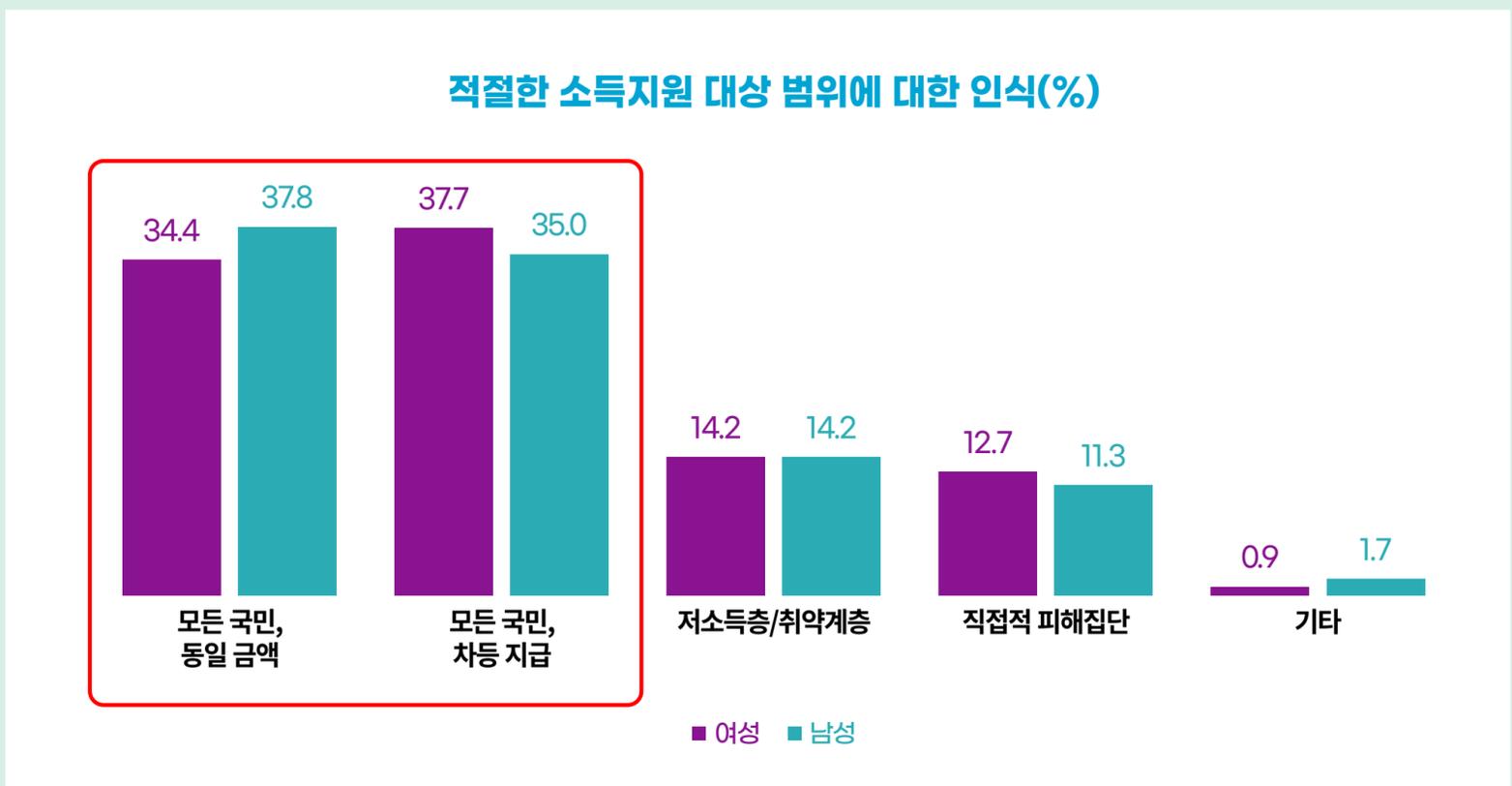


## 재난지원금 지급 시 긴급성·적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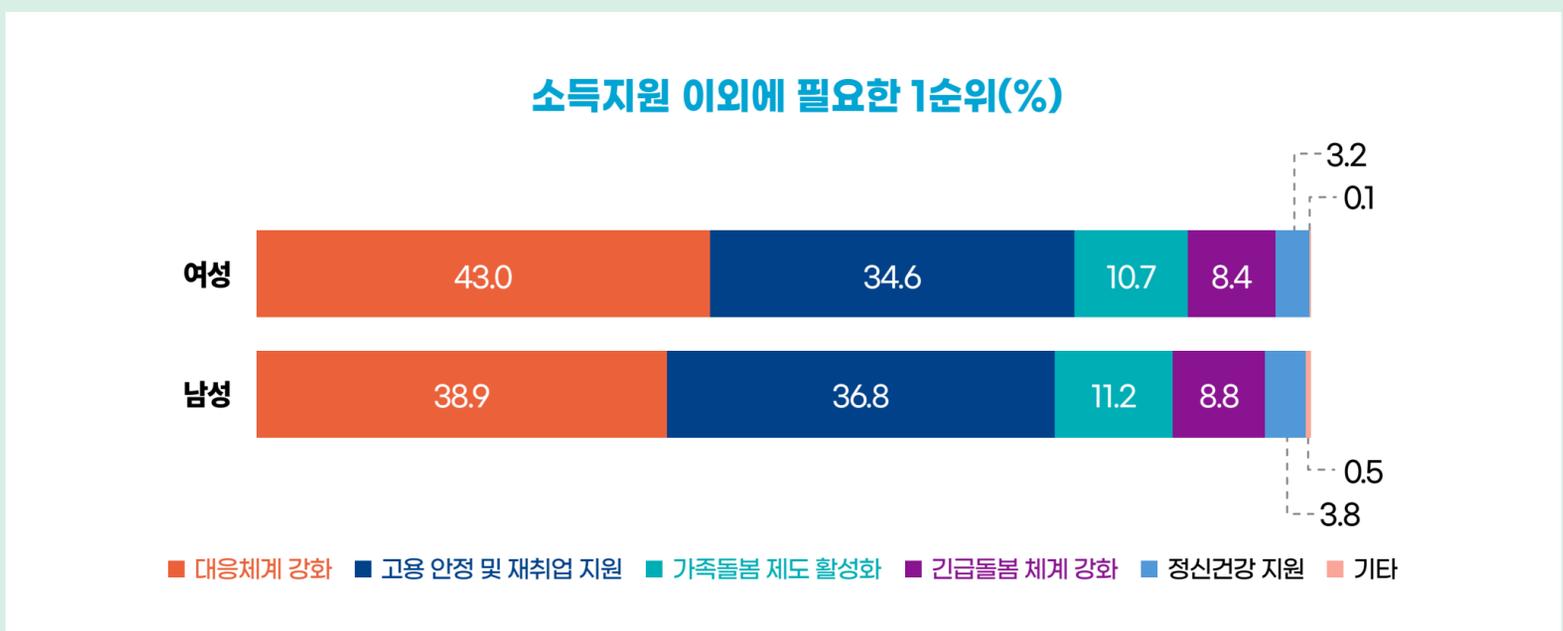
### 소득지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임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지원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관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모든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차등 지급에 대한 여성 응답이 다소 높고(여성 37.7%, 남성 35.0%), 동일 지급에 대한 남성 응답이 약간 높음(여성 34.4%, 남성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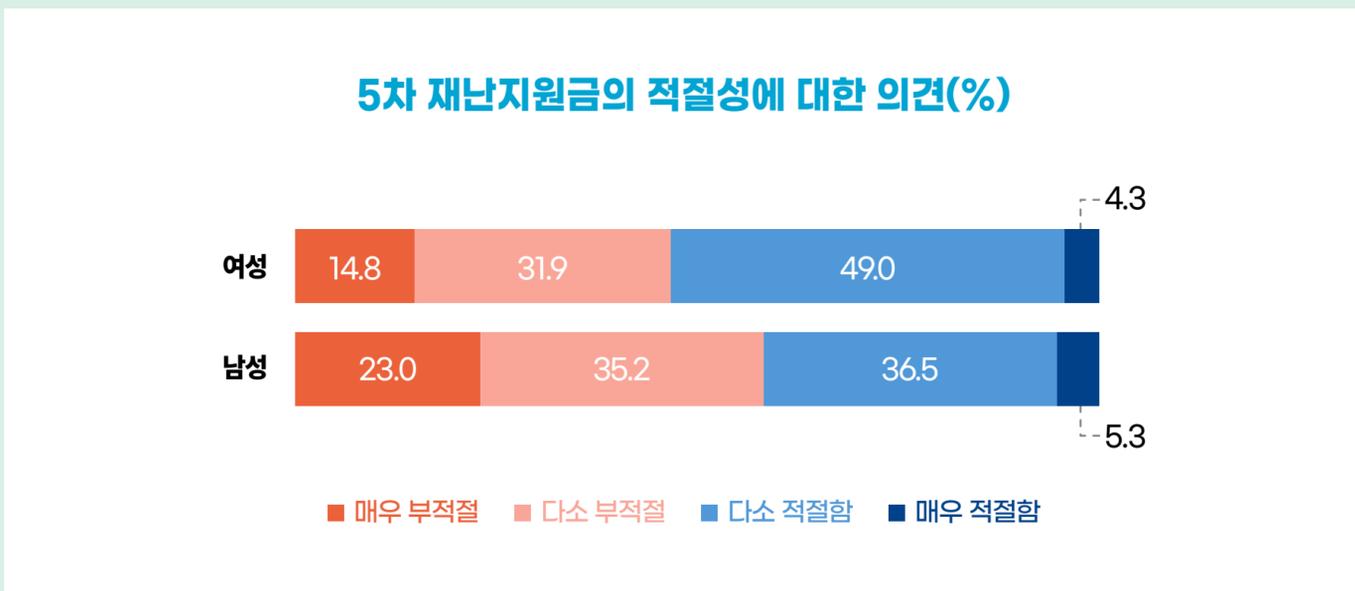


- 소득지원 이외에 필요한 지원 1순위 응답결과를 보면, ‘대응체계 강화’(여성 43.0%, 남성 38.9%),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여성 34.6%, 남성 36.8%), ‘가족돌봄 제도 활성화’(여성 10.7%, 남성 11.2%)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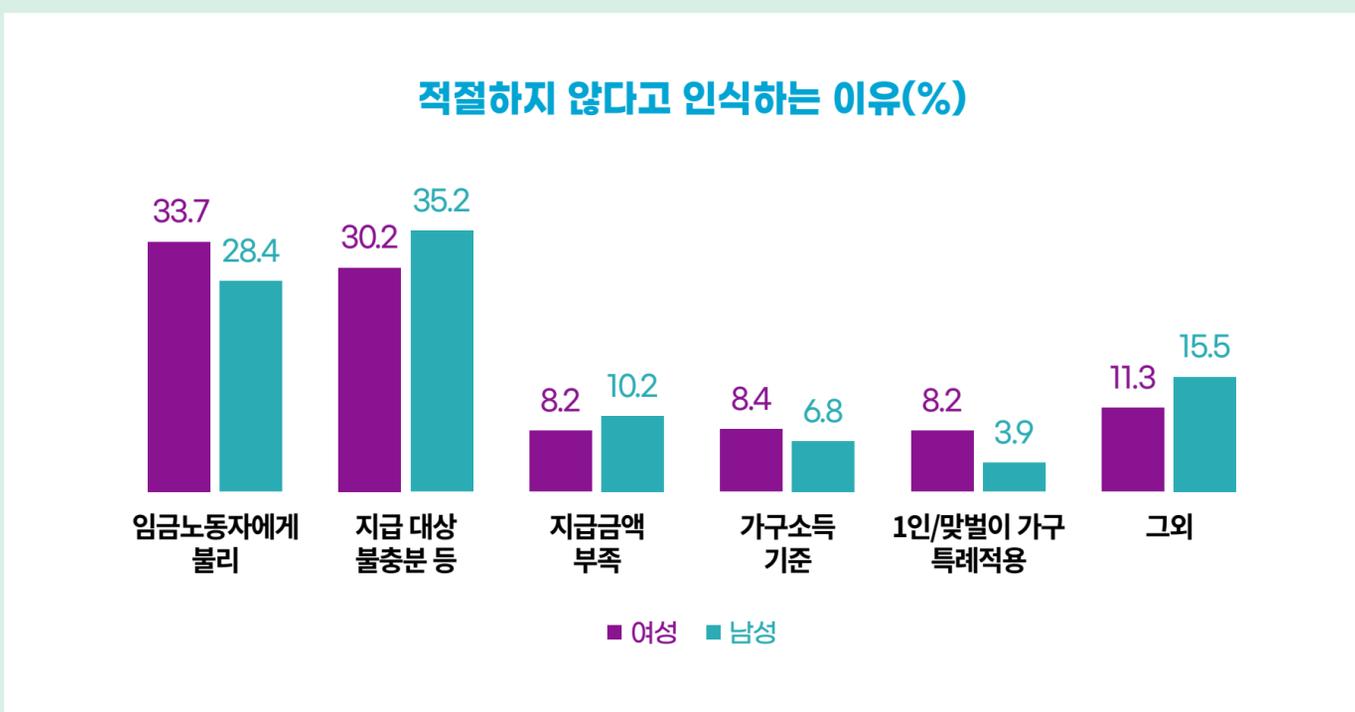


##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이름

- 지난 2021년 9월에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됨. 이에 대해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 46.7%(매우 부적절 14.8% + 다소 부적절 31.9%), 남성 58.2%(매우 부적절 23.0% + 다소 부적절 35.2%)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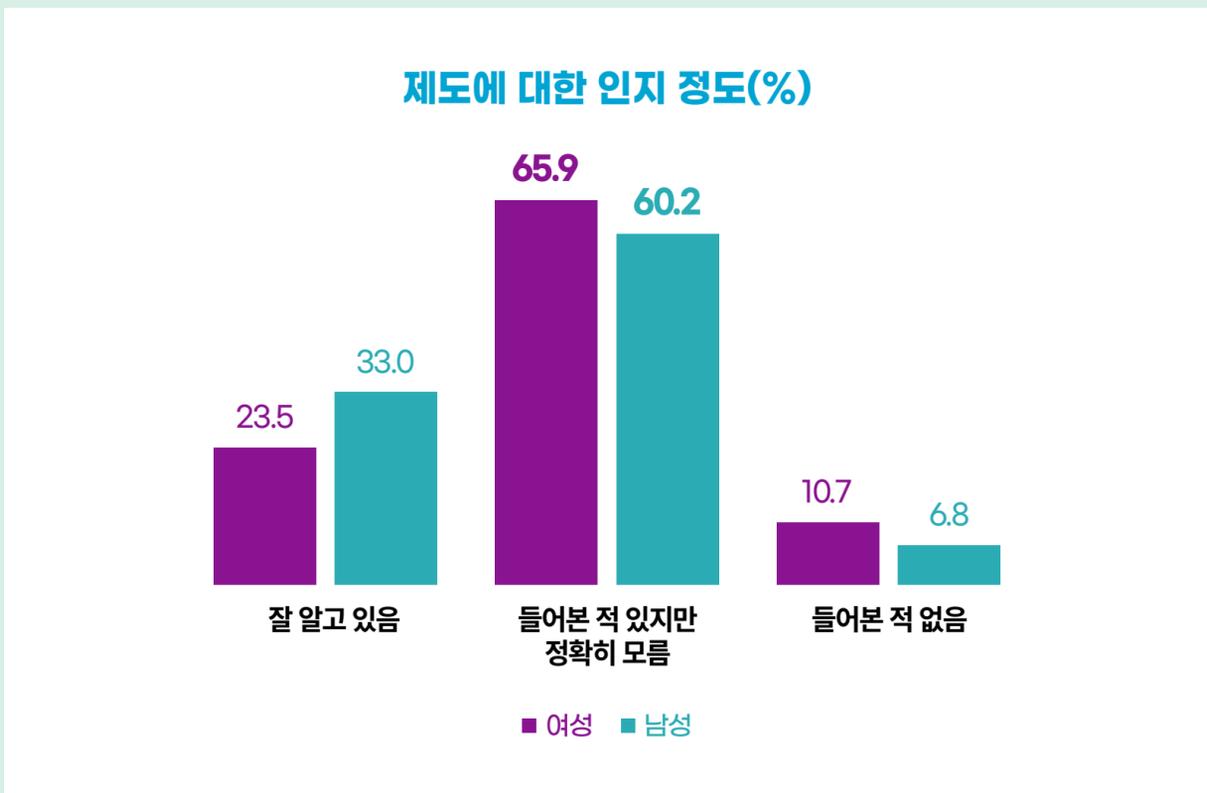
-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나, 주로 임금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지급 대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임. 즉, 소득 기준으로 일부 대상을 전면 제외한 것이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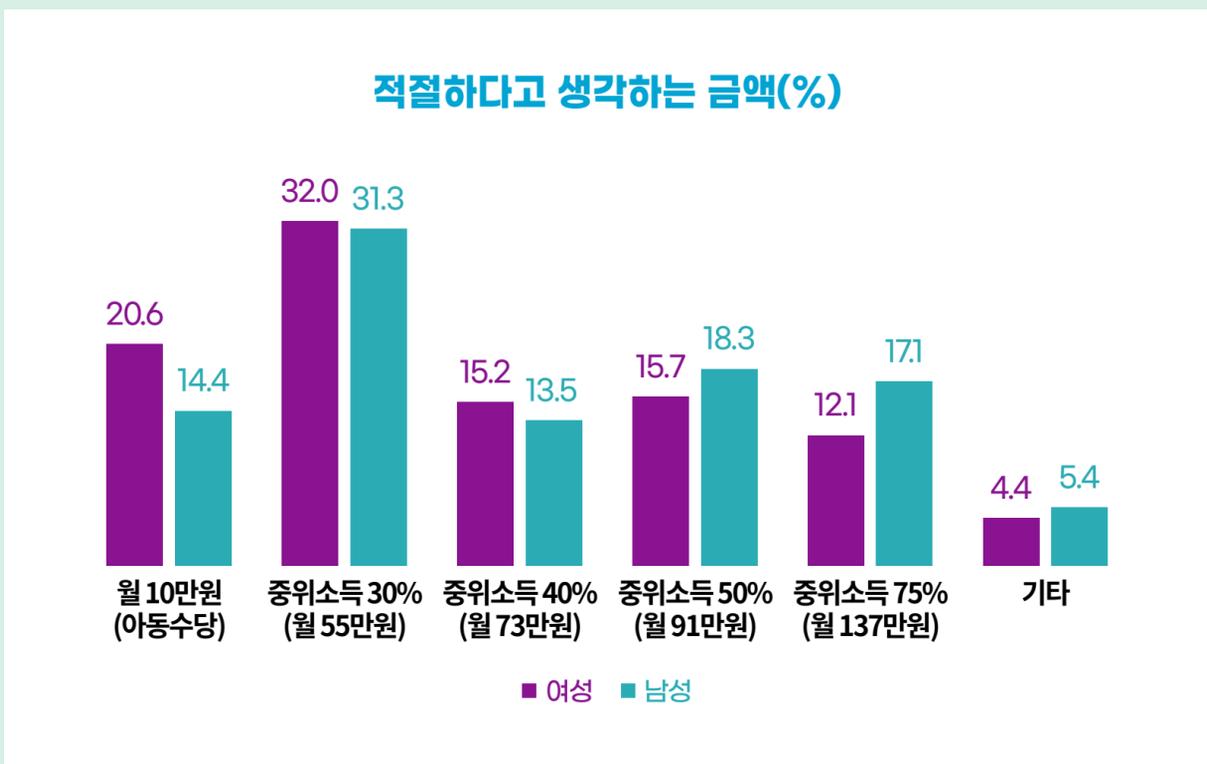
## 일상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응답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으며,  
지급된다면 중위소득의 30%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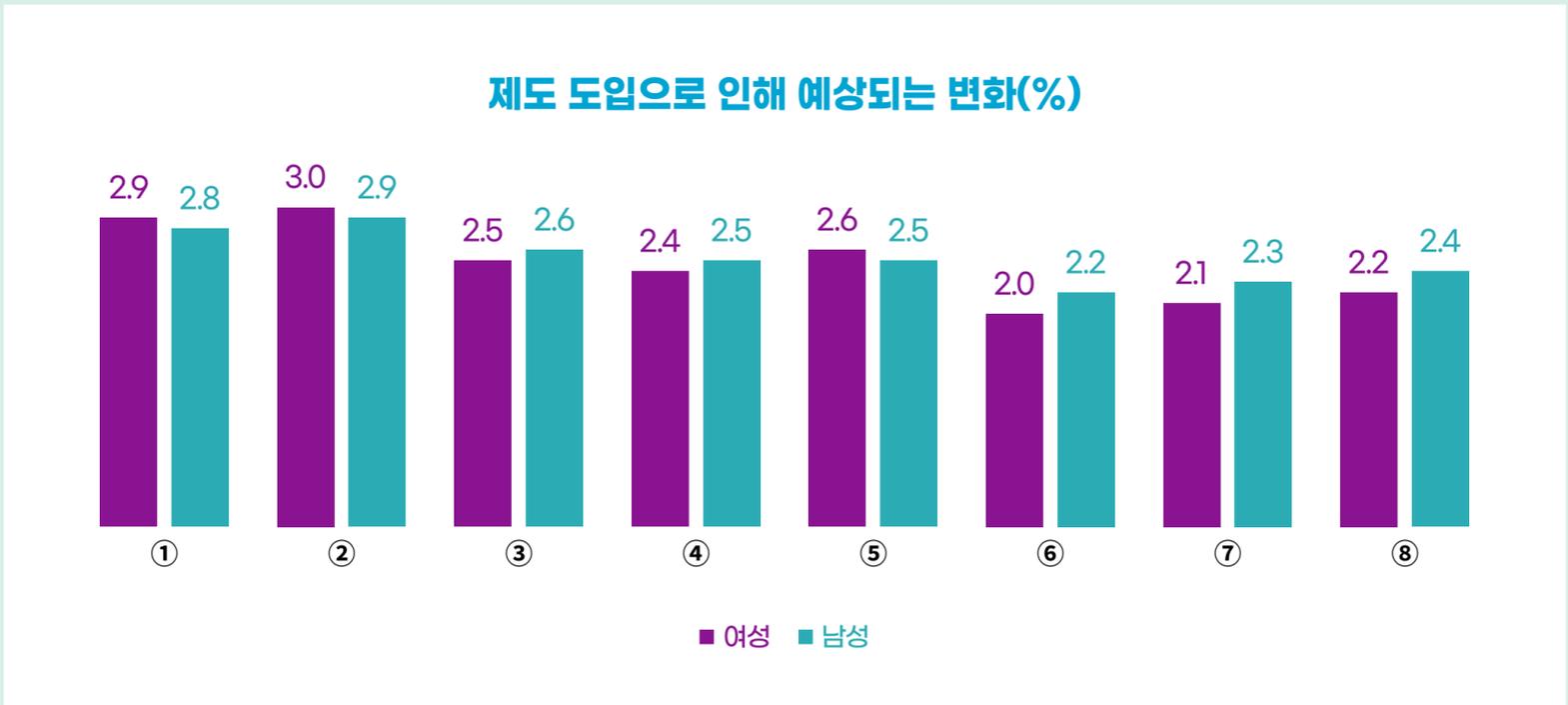
-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소득지원 관련 논의가 활발해짐.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65.9%, 남성 60.2%를 차지하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 23.5%, 남성 33.0%인 것으로 나타남



- 일상적 소득지원 시 적절한 금액은 중위소득의 30%(월 55만 원)이라는 응답이 여성 32.0%, 남성 31.3%로 가장 많음



- 일상적 소득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이 커질 것 같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여성 3.0점, 남성 2.9점/4점 만점), ‘노동시장에서 남녀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가 가장 낮음(여성 2.0점, 남성 2.2점/4점 만점). 전반적으로, 소득지원제도 도입 시 젠더 관계가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보다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 주: ① 일(경제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  
 ② 일(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간에 갈등이 커질 것 같다  
 ③ 사회경제적(소득, 문화, 정보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④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  
 ⑤ 제도의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⑥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격차가 줄어들 것 같다  
 ⑦ 제도가 도입되면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완화될 것 같다  
 ⑧ 제도가 도입되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보다 평등하게 될 것 같다

- 한편, 소득지원으로 젠더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정도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돌봄 가구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여성, 젊은층, 돌봄 가구원이 없는 집단에서 기대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지원으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줌

## 사회보장체제를 넘어선 시민적 권리로서의 소득지원

- 재난지원금 사용 경험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보장이 가능함을 각인시켜 줌.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기존의 복지체계를 뛰어넘어,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국가로부터 금전적 수혜를 받은 최초의 경험이라 할 것임
- 지난 두 차례의 소득지원 정책은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이 배제되거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자가 불리하게 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드러냈음.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존중받을 때 소득지원에서 비롯되는 사회갈등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
- 여전히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돌봄 가구원 여부 등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이해에 주목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수들이 상호교차하는 지점이 만들어내는 다층적 정책 요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음